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야곱에게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하란)에 가서 이방 여인이 아닌, 같은 종족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고 떠나보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야곱 본문의 밤은 두렵고, 떨리고,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계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베었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의 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 깨달은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하나님의 함께하심에서 오는 평안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이란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지 않고 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셨지만, 항상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눈이 귀가 열렸다. 그동안은 안락함이 그의 눈을 가렸다. 자신의 힘이 귀를 가렸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그의 집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좋은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2.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소망의 회복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복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13~15절을 보세요. 약속을 주시고, 축복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이 순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복은 형과 경쟁하여 빼앗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 축복을 주십니다. 함께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14절 후반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을지라.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희망과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함께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3.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일이 있습니다. 18절 이후를 보시면, 우선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야곱에게 귀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2절에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더 갖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가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드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조건을 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보고, 연약하고 죄악된 자신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변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또다시 제자리에 있는 자신을 보곤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불행 그 자체가 됩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길 축복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창세기 28장 16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20(월)	6/21(화)	6/22(수)	6/23(목)	6/24(금)	6/25(토)	6/26(주일)
시1-9	시10-18	시19-24	시25-30	시31-35	시36-39	시40-44

QT

이번 주 QT 말씀

6/20(월)	6/21(화)	6/22(수)	6/23(목)	6/24(금)	6/25(토)	6/26(주일)
예 8:1-10	예 8:11-17	예 9:1-16	예 9:17-28	예 9:29-10:3	시 22:1-21	시 22:22-31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3.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축복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